



나누는 고도체 떠불어 사는 고도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Fr. 김진열 가톨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집회 3.17-18.20.28-29

[화답송]-----시편 68 (67),4와 5ㄱㄷ.6-7ㄱㄴ.10-11 (◎ 11ㄴ ㄷ참조)

(후렴) 하느님,당신은 가련한 이를위하 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 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제2 독서]------ 히브 12.18-19.22-24ㄱ

[복음 환호송] 마태 11,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 음] 루카 14. 1.7-14 [성가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23] 온세상 다스리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연미사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허 미자 실비아 이상토 되다 김연주 레아 이 창희 필립보 강 혜숙 바울라 이 창희 필립보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이 창희 필립보 진 경란 모니카 진 석용, 박 만순 진 경란 모니카 진 길춘, 오 덕심 마리아

생미사

김 진열 가톨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본당 사목 위원님들, 본당 연령위원님들 본당 전례 위원님들, 본당 성령기도회원들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그녜스 백 안드레아, 임 마가렛, 이 안젤라 조 후연 야고보 신부, 조미카엘, 조 데레사 본당 모든 교우님들 위해 2022년 모든 청년 전례부원들 지 군자 스테파니 박 수정 크리스티나 (생일 축하) 김 동관 베네딕도 윤 복홍 요한 신 호균 안토니아 (취업을 위해)

이 상돈 토마스 김 연주 레아 청년 전례부 익명 양 미숙 마리아

> 익명 주 현경 바울라 신 해리 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8월28일	김진섭 야고보	박기목 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지훈 아녜스	한서희 데레사	이성하 시몬
9월4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와 버스 신청받습니다.

- 일 시: 9월 11일 (일) 오전 11시
- 장 소: 뉴튼 성 베네딕도 수도원
- 마 감: 9월 4일

●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노래로 하는 하느님 찬양은 두배의 기도'라는 어거스틴 성인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 의: 노 데레사 917-692-6447
-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피아노 전공하신 분
 - 문 의: 이 카타리나 646-696-4680

● 레지오 마리애 교육

- 일 시: 9월 23일(금) 오후 4시~ 9월 25일(일) 오후 5시
- 신청마감: 8월 28일 (일)
- 참가비: \$300 (선착순 30명)
- 장 소: 뉴튼 베네딕도 수도원
- 신 청: 신청서 작성 후 본당사제의 서명, 각 본당 꾸리아 단장님께

● 컴퓨터 배워요. 포담대학에서 주관, 무료교육!

- 접수일시: 9월 7일(수), 9월 14일(수) 오전9시 오후12시
- 문 의: Jesus Loza 631-796-0735, adultesl@fordham.edu
- 장 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
- 개 강: 9월 21일 (수)
- 초급반: 수요일 오전 9:30-11:00
- 중급반: 수요일 오전 11:30 오후 1:00
- **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한 반에 학생 10명만 받습니다**

● 영어 배워요. 포담대학에서 주관, 무료교육!

- 접수일시 : 8월 22일(월)과 8월 31일(수) 오전 9시-오후12시
- 개 강 : 9월 12일(금)
- 장 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수 업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30-오후12:00
- 문 의: Jesus Loza 631-796-0735, <u>adultesl@fordham.edu</u> **자세한 정보는 2층 사무실 포스터 확인**

● 2023 달력 광고 접수 받습니다.

- 대 상 : 개인이나 기업의 광고를 본당 달력에 싣고 싶으신분들
- 마 감 : 9월 3일 (토)
- 광고비 : \$100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 stfrancisnyc.org→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am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D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 am ~	교육관 1B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0:30 am ~	Korean Conf.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이경희 (미카엘라)

[2022년 8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 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광고주를 찾습니다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뉴욕 맨하탄 MYCINTEGRATIV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오늘의 묵상

- 루카 14, 1.7-14 -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끝자리에 앉아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 예절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이 하느님의 사랑을 얻는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손님을 초대한 사람도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사람끼리 선심을 주고 받기를 그만두고 하느님께서 주실 참 행복을 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독서 집회서는 '겸손', '자만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를 풀이했습니다.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반면 고집 세고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다고 경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하느님의사랑을 받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 히브리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탈출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을 기억시키며 종말론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풀이 일며 또 나팔이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심판자 하느님과 완전하게 된이들의 영들과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소개하면서 천상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이같이 믿는 이들은 현세를 살면서도 마지막 날의 구원을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하여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겸손의 지혜로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박 홍식 돈보스코 신부의 '울뜨레야지'에서

울뜨레야 (Ultreya)는 스페인어로 '전진하라, 여기까지 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 혹은 지구 차원에서, 꾸르실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가 되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본당 울뜨레야와 지구울뜨레야입니다. 울뜨레야를 통해서 꾸르실리스따들은 꾸르실료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고, 교육받은 내용들을 각자가 실천한 부분에 대한생활 나눔을 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상복음화를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울뜨레야는 레지오나 성령기도회와마찬가지로 신심단체입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단순히 꾸리실료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리실료 이후의 사도적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적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당 울뜨레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도적 활동입니다. 함께 하면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고 은총이 배가 되며, 기쁨과 감동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본당 울뜨레야 참여가 꾸르실료 관련 사도적 활동의 전부라고 말해서도 곤란합니다. 꾸르실료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꾸르실리스따들이 본당 울뜨레야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사도적 활동들을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개최되고 있는 꾸르실료 교육을 위한 영적 빨라까를 봉헌하는 것은 참으로 이타적이고 애덕 넘치는 사도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꾸르실료 교육 참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에게 참여를 권고하고 독려하는 일도 상당히 좋은 사도적 활동입니다. 또한 꾸르실료 교육기간 중에 수강생들에게 영적, 물적 빨랑까를 제공하거나, 교육 장소를 방문해서 그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은총을 받게끔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사도적 활동입니다. 물론, 꾸르실료 교육의 봉사자로 일하는 것은 당연히 더할 나위없는 사도적 활동입니다. 아울러, 꾸르실료 사무국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신례교례회, 지구 울뜨레야, 혹을 꾸르실료 피정 등 여러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모범적인 사도적 활동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사도적 활동들은 모두 다 본당 울뜨레아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본당 울뜨레야가 잘 되는 본당은 꾸르실료 운동의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본당 울뜨레야가 침체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본당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생활나눔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는 나눔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불편한 이유는 천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눔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험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울뜨레야에서 나눈 개인적인 생활 나눔은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눈 이야기를 다른 장소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 후로는 진솔한 나눔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서서히 본당 울뜨레야가 침체됩니다.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합니다. 울뜨레야를 통해서 본인이 많은 사도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사도적 활동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도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욕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꼭 삼가도록 합시다.

데꼴로레스!